



美國의 無醫村

孟 光 鎬

〈가톨릭醫大助敎授·豫防醫學〉

얼마전 AFKN 텔레비전에서 본 어느 外畵중에서 의 일이다.

「리차드·벤」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멕시코로 부터 미국으로 密入國 해 오는동안 銃傷을 입게 되는데 국경에 연한「아리조나」주 아니면 「뉴 멕시코」주 어느 마을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의사를 찾는 장면이 나온다.

동반한 흑인친구가 마을 사람에게 의사 있는 곳을 묻자 그 마을 사람은 어림도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의사는 18마일(약 70리)밖에나 가야 있을뿐 아니라 그 의사는 술주정꾼이라네」하고 쏘아붙이는 것이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버릴 얘기지만 이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현대라는 점, 그리고 그것도 미국에서 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한 토막 대화는 그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수가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소위 無醫村은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가에나 있는 것이고, 「개인경제가 발전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면 이런 문제는 자연히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형편에서 이런 미국의 예는 충분히 애깃거리가 됨직도 하다는 말이다.

무의촌이란 글자 그대로 의사가 없는 마을이다. 그래서 병이나도 의사의 치료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더러는 운 좋게 건강을 되 찾기도 하지만 더러는 그대로 죽어갈 수 밖에 없

는 그런 마을이다. 이런 마을이 미국에도 결코 적지가 않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글자 그대로〉이 무의촌은 미국에서 더 실감있게 찾아 볼수 있다고도 할만하다.

그것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7~80리씩이나 멀리떨어진 곳에 의사가 있을 뿐인 그런 마을을 별로 없기 때문이다.

멀아야 몇십리, 그러나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의사를 찾지 못하는 그래서 무의촌이란 말 대신 無錢村이라고 부르는 편이 훨씬 낫다는 그런 마을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을 뿐이라고 할수 있다.

최근까지도 미국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는 시골 「카운티」(우리나라의 군에 해당되는 행정구역단위)가 무려 130개가 넘는다는 기록을 읽은적이 있다.

■ 醫療利用度높아 항상 醫師모자라

재미있는 일은, 그래도 미국인들은 〈무의촌〉이란 말을 결코 쓰지 않는 점이다.

주로 미국내 의사의 지역별 분포의 불균형 문제와 관련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많은 글과 논문이 있지만 모두가 〈충분한 의료 혜택을 못 받은 지역〉(underserved area) 정도로 표현할뿐 굳이 무의촌 또는 무의지역이란 말을 안쓰는 걸 보면 그들 생활에서 흔히 보는 특유의 오만(?)같은 것마저 느끼게된다.

그래도 미국은 어느 가정이나 차 한대쯤은 다 가지고 있고 또 도로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의사의 10마일이나 20마일 밖에 있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미국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지역별 의사 분포의 불균형은 가장 큰 고민거리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논문들 가운데는 의사가 적은 농촌 지역에 만성질환 환자가 많아 영아 사망율도 높을 뿐 아니라 사고가 났을적에 치사율이 매우 높다는 보고가 많다.

이것은 농촌 사람들 특히 중류이하의 사람들의 경우 병이 아주 심해 질때까지 좀체 의사한테 가게 되질 않는다는 조사연구로도 그 까닭을 알수가 있다.

미국의 지역별 의사 분포를 보면 중북부와 남부 지방은 동북부나 서부지방에 비해 그 절대 수에 있어서도 훨씬 적은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인구 10만에 1백 71명 정도의 의사를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국은 같은 인구 10만에 단 80명 정도의 의사를 가진 「미시시피」주에서 부터 240명 정도의 의사를 가진 「뉴욕」주 까지 그 분포가 다양한 형편이다.

물론 이 숫자는 우리나라 그것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숫자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에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인구 10만명 당으로 치면 100명이 겨우 넘는 정도이고 충청북도의 경우는 단 20이 채 안되는 정도이니 그 차이는 비교도 안된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문체는 미국의 경우 이들 의사가 그런대로 충분히 쓰여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바꾸어 말하면 미국은 醫療利用度가 높아서 이만한 숫자의 의사로도 아직 크게 모자라는 형편이며 우리나라는 주민의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미국과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는 의사포화 상태에 있는것 같은 인상이 더욱더 드는 것이다.

인구수에 비해 의사가 많은 순서로 말하면 미국

은 세계에서 열째 안에 드는 국가중의 하나다.

즉 「이스라엘」이나 「러시아」 「불가리아」 「이태리」 그리고 「아르헨틴」등 나라에 다음가는 그룹에 속하는 형편이지만 땅이 넓다보니 그 분포가 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인구 10만에 의사가 40정도 밖에 안되는 농촌 지역이 얼마든지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전체 임상 의사의 약 77%가 전문의(專門醫)이고 나머지 23% 정도가 一般醫이기 때문에 소위 1次진료를 담당할 의사가 절대수 부족한 상태이고 따라서 농촌에서 의사가 가질 않는 형편인 것이다.

1963년부터 3년간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활동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단 6%만이 인구 50만이하인 적은 도시 내지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 인구전체의 19%에 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 新種職業으로 醫師「부로커」가

굳이 신종(新種)직업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요즘 특히 활기를 띄고 있는 이색직업 가운데 미국에는 의사「부로커」(?)라는 게 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 의사를 구하려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들 가운데는 시골 병원 事務長격인 사람들이 많다.

매년 6월말이 되면 도시에서는 수련을 마치는 의사들이 대거 배출되기 때문에 이들을 비교적 인구가 적은 시골 지방 병원으로 유치하기 위해 도시로 의사를 구하려 다니는 사람들인 것이다.

이들은 큰 도시에 나와 호텔에 방을 정하고, 자기 병원에 지원했거나 지원을 원하는 의사들을 인터뷰도 하고 필요하다면 계약까지하게 된다.

물론 의사단체 가운데서 의사와 병원을 연결지어 주는 일을 해주기도 하지만 의사로서는 이들 의사「부로커」와 직접 만나 조건을 협의해서 정하는 편이 훨씬 편하다고 할수 있다.

물론 이 경우 병원이 있는 지역이 더 시골인 경우는 단지 연봉만 가지고 시골로 가려 들지는 않는다.

이런 절차를 거쳐 지난해 어느 조그만 시골 병

원에 자리를 구해간 내 친구 하나가 다시 큰 도시로 나와야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최근 내게 보내왔다.

그는 이 병원에 가기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어느 시골 병원에도 한번 인터뷰를 간적이 있는데 그때 驛에는 병원직원 및 동네 사람들까지 나와 마중을 극진히 해 주더라는 애길 내게 해 준적도 있다.

아름다운 큰 도시에서 오래 근무했고 그곳 의과대학에서 스태프발령까지 받아 연구와 교육에 종사했던 그에게 시골 병원의 일이 만족을 주었을까 무하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의사를 구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 곳이라면 적어도 인구가 5만명 안팎은 되는 곳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이보다 더 시골이 되면 의사 구하기는 더욱 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미국에 머물던 지난해 초여름 나는 「버지니아」와 「웨스트 버지니아」주를 여행한 일이 있다.

「웨스트 버지니아」는 특히 미국에서도 가장 못사는 주에 속하는 그 대부분이 산간 농촌 마을들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다.

그곳 어느 산간 마을을 지나면서 「나는 마을 어귀에 매달아 놓은 현수막을 보고 무척이나 재미난 것을 보리라도 한듯 한참을 본적이 있다.

그곳엔 「우리는 의사를 원합니다」라는 말이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 人氣있는 시골의사

「프란츠·카프카」의 글 가운데 〈시골 의사〉라는 제목의 단편하나가 있다.

눈보라가 치는 칠흙같이 어두운 어느날 밤, 10마일(약40리) 밖에서 청한 왕진을 다녀 오는 동안의 짧은 얘기속에 시골 사람들,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 사는 한 늙은 시골 의사의 얘기가 잘 나타나 있는 글이다.

「夜間用 뿔을 이용하여 밤마다 나를 괴롭히며…」 「불가능한 일은 언제나 의사에게 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나를 부려 먹고 있지만…」 「나는 적은 봉급에도 환자보기를 즐겨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나의 모든 고통을 감수할 뿐」이라고 독백하는 늙은 의

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차라리 牧歌的인 분위기와 훈훈한 의사의 사람됨을 읽고 감동하는 것이다.

사람을 너그럽게 이해하기에 충분한 지긋한 나이. 식생활 정도나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수입, 야단스럽지 않은 학력이나 경력, 그리고 농촌의 그 모든 분위기를 사랑하는 인자함.

그러면서도 불편한 문화시설이나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겪어내는 높은 사명감. 이런것들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시골의사다.

말하자면 예(例)의 소설에서 처럼 예전의 시골 의사는 철저히 희생만을 강요받는, 그러나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의사들이 었던 것이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그럴 필요도 없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미국의 시골 의사는 그마을 전체가 이 의사를 마치 보물(?)처럼 대접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존경하고 있다.

그것은 물론 회소가치에 대한 인식정도로 인식하고 해석할 수도 있는 노릇이지만 어찌됐거나 시골 의사는 그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다.

나의 오랜 미국친구 하나는 「아이다호」주 시골에서 자라 지금은 「인디애나」주립 대학교 사회학 조교수가 되었는데 워낙 시골을 좋아하는 성격 때문에 「블루밍턴」이라는 조그만 도시의 分校로 자리를 구해가 있다. 내가 미국에 있는 동안 우리는 여러차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친구는 나에게 시골의사 얘기를 종종 해 주곤 했다.

한마디로 돈만 아는 도시의사들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의사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지금은 어지간히 발달된 시골의 의사는 도시의 의사들과 다름없이 오후 다섯시만 지나면 진료실 문을 잠그고 퇴근해 버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는 늘 만나볼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에게 낮익은 사람이 의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의사는 그 지역사회의 유지(有志)에 속한다.

나와 의과대학 동기동창인 의사하나는 처음미국에 건너가 도시에 쉽게 자리를 구하지 못한 탓으로 조그만 시골 병원에 취직을 한일이 있다.

그 곳에서 지내는 동안 그는 너무도 융숭한 대접 때문에 애당초 1년만 있기로 했던 계획을 변경

하고 5년남짓 그곳에서 지냈다.

주위의 몇 사람 개업의를 위해 설립된 병원에 「하우스피지션」(House physician, 전임의사)이 그의 자리였지만 자기 말로는 院長이나 다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인의 희망도 있고 자신도 보란듯이 수련을 받고 싶어지난해 봄 「위싱턴」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때 마을이 온통 그를 송별해주며 애석해했던 일은 잊지를 못하겠다고 내게 얘기해 준일이 있다.

1년이 다 지나서 까지도 그곳 마을 행사에 초대장을 보내더라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시골 사람들에게 의사가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지를 알수 있었다.

그래도 의사들은 시골에 가기를 꺼려한다.

더구나 사람도 드문드문 사는 깊은 시골로 갈수록 그곳 의사들은 예외 없이 高齡이고 이들이 머지않아 은퇴를 하게 되지만 젊은 의사들은 점점 시골가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많아서 이 농촌과 도시의 분포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 지리라는 전망이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시골이 의사부족으로 야단치고 건강을 인간의 첫째 가는 권리로 생각하는 미국민들,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의 미국 정부는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 무의지역 解消를 위한 노력들

건강이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점과 醫療의施惠의 성격만으로도 모든 사람이 균등한 의료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의 주거와 이동의 자유를 구속할 아무런 이유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말하자면 이 두가지 특질의 충돌을 아직은 자연스럽게 해결해줄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의사를 무한정 생산해 낸다든지, 강제로 시골에 보내본다든지, 학자금을 대어해 주고 이 상환조건으로 농촌 근무를 의무화 해 온다든지 하는 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일을 완전히 해결하고 있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지난 10년간 특히 「닉슨」 행정부 이래 미국은 우선 의사의 양적증가를 시도해 왔다.

의대를 증설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파격적인 예산을 배정해 왔으며 해외로 부터 많은 의사를 받아 들여 왔다.

특히 외국의사들을 받아들인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醫師過小 지역에 퍼져 1次진료를 담당해 주기를 크게 기대했던 것이지만 결과는 의사의 도시 집중을 더욱 부채질 한 셈이 되었다.

■ 全醫師의 17%가 外國人醫師

지금 미국에는 외국의사들이 전체의사의 약17%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수련중인 의사들만 따지면 전체 수련의사의 약25%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때(1970년)는 미국내 인턴 레지덴트의 34%가 외국의사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의 75%가 미국의 동북부나 오대호 부근 12개 주에 몰려있는 형편이다.

결국 의사의 量産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는 없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공율이 높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와 관련된 노력 가운데는 장학금 제도(수혜받은 연한과 관련해서 일정기간 농촌에 근무함으로써 그 상환을 면제받는 소위 Loan Forgiveness Program)와 의학교육의 개편등을 들수 있다.

前者는 1940년 이래 여러주에서 자발적으로 시도해온 제도로서 60년대에는 연방정부에게도 이를 채택하여 지원했던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받은 장학금을 졸업후 반납해 버리고 농촌에 가지를 않기 때문에 별반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상 60년대말에는 이 제도를 채택하던 22개 州가운데 5개주가 이를 폐지하고 말았다.

비교적 성공율이 높은 州의 경우는 조건이 반드시 시골 근무가 아니며 해당주만 떠나지 않고 어느곳에건 개업을 해도 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겨우 60%이상의 성공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하면,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소위 지역 사회 의학 실습에 비금한다고 할만한 학생교육의

책택은 꼭 좋은 결과를 예상케 한다고 할수 있다.

■ 注目받는 WAMI프로그램

이같은 노력 가운데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소위 WAMI프로그램이다. WAMI란 미국의 서북부에 위치한 Washington, Alaska, Montana 그리고 Idaho 주의 첫 머리 글자를 딴 것으로 이들 주는 전 미국 국토의 22%에 해당하는 넓이의 땅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는 약 600만에 해당하는데 의과대학은 Washington 주에 한단계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의사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고 특히 Alaska나 Idaho 그리고 Montana 주는 Washington 주에 크게 의존해서 의사의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WAMI 프로그램의 골자는 의과대학생, 특히 의과대학생이 없는 주의 농촌 출신을 일정기간 자기 출신주의 일반대학에서 의과대학 초학년의 교육을 받게하고 고급학년에게는 능력있는 농촌의사에게 임상실습을 받도록 함으로써 농촌개업에 친숙해지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졸업후 각기 자기 주 또는 농촌에 자발적으로 가게 할뿐 아니라 농촌 개업의에게는 대학의 임상 스턴트의 자격을 줌으로써 농촌개업을 격려하고 그들의 지역사회 보전에 기여케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이같은 교육이론은 한마디로 <도시의사>가 농촌으로 가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시골 의사를 스스로 만드는 노력을 대학이 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시골의사를 상대로 한 많은 연구 논문을 보면 이들의 많은 수가 농촌출신이거나 적어도 농촌취향적인 동기가 뚜렷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다.

미국정부가 1971년 「의료인력 훈련에 관한법」(Health Manpower Training Act)을 제정해서 몇년간 실시한 일도 이 점에 착안한 것이라 할수있다. 이 법은 각 의과대학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농촌에 갈 것을 희망하는 학생을 일정수 우선적으로

뽑게 하고 이들 교육을 위한 자금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너무 애매한 선발 기준 때문에 1974년에는 이 법을 폐지하고 말았지만 어찌됐건 이일도 그 노력의 한예라 하겠다.

■ 건강은 개인의 권리이자 사회의 책임이라는 생각

건강이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사실의 역설과 또 이 사실에 대한 만인의 공감만으로는 무의지역이 해소되지를 않는다.

건강이 개인의 권리이기는 하나 사회는 이 권리 향유를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자각이 있을뿐 아니라 그것을 옹기는 사회가 미국이다.

그래서 시골 사람들의 건강문제를 의사라는 개인에게 그 개인적 희생으로만 해결하도록 하지를 않는다.

실사 의사로하여금 그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도록 하는 경우를 제도화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희생은 국가가 응분의 보상을 주어야만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무의지역을 없애는 일은 의사들 스스로의 높은 윤리감과 사명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말하자면 훌륭한 <시골의사>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명감이 뚜렷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의사는 미국이건 어디건 그리 흔치가 않다.

그래서 요즘은 의사윤리에 관한 사항이 교육에도 임상에도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걸 볼수 있다.

이런의미에서도 호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루터킹」의 다음과 같은 연결 한토막은 의사를 비롯한 모든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자각을 불러 일으키는 명언(名言)이라고 할만하다.

「당신들은 그동안 그 과학적 재능을 발휘하여 이 세계를 하나의 <이웃>으로 만드는데 성공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를 하나의 <형제>로 만드는데 필요한 도덕적이고 영적인 재능의 개발과 발휘에는 아직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